

韓 國 燈 火 史

(13)

A Light Lamp History of Korea

崔 漢 燮

第 5 章 近世의 後期

여기서 近世의 後期라 함은 壬辰亂以後로 부터 純宗末年(AD1910)까지를 말한다.

당시 滿洲에는 後金國이 봉기하여 점차 세력을 펴나가 뒤에 國號를 淸이라고 호칭했다.

仁祖 5年(1627年)과 14年(1636年) 두차례에 걸쳐 淸은 朝鮮이 아직도 明과의 友好關係를 끊고 淸과 宗屬關係를 맺지 않음을 理由로 大兵을 이끌고 南侵, 南漢山城을 포위했다.

仁祖는 포위 45일만에 三田渡(松坡)에서 淸 太宗에게 항복했다(1637). 壬辰亂의 상처가 가시기도 前에 또 이러한 打撃을 받았고 더욱 國內에서는 朋黨의禍가 심하여 國力の 疲弊는 極에 달했다.

그러나 英祖·正祖時代에 이르러 國力이 회복되고 文藝가 復興하는등 가장 特色있는 時代를 이루었다.

그후 淸國을 통하여 西歐文化가 傳來하여 많은 영향을 받았으나 外教의 排斥으로 발달의 機會가 적었으며 다시 外勢의 侵入으로 半島는 諸外國勢力의 爭衡地로 化하고 말았다.

이와같은 時代的인 背景아래에서 특히 旧韓末에는 石油와 성냥등의 燈火器具가 傳來하고 다시 國內에 電氣事業이 시작됨으로써 우리나라의 燈火生活는 革命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時代에도 역시 石油와 石油램프가 傳來하기까지에는 燈檠, 燈架, 燈蓋, 燭臺, 燭籠, 麻燭, 煤(炬火), 蠟燭등이 쓰여졌고 그 材料도 鐵, 銅, 漆, 白銅, 나무, 陶磁器, 竹, 유리, 종이등이 있고 기름도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桐實油, 魚油등 다양하며 蠟燭에도 牛脂, 豚脂, 蜜蠟등이 있었다.

炬 火

正祖實錄 卷五三 二十四年正月條에 王은 園(王의 生父 思悼世子의 墓)의 行次時 鷲梁에서 始興까지 炬를 세워 燈에 代할 것을 命함(命園行時 自鷲梁 至胎興 植炬以燈代之)이라는 記錄이 있다.

王의 行次에 있어 提燈-燭籠을 가진 수행원들이 行列에 끼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길 양쪽에다 炬를 세웠던 것이다. 炬는 炬子라고 불리우는 횃불이다.

그림73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리나무의 밑둥머리를 묶어 쓰는 炬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燈에는 蠟燭등의 귀중품이 많이 쓰이므로 경비절약을 위하여 횃불을 代用한 것이다.

炬는 또 燎라고도 하였다. 炬炬는 高麗時代의 「庭燎」에서도 이미 記述하였지만 1930年代까지만 하여도 成均館을 비롯하여 各地의 文廟의 釋尊儀式에 사용되었으며



〈그림-73〉 炬炬

그밖에 宗廟와 永寧殿의 祭禮와 陵祭에도 사용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前述한바와 같이 이 炬火도 身分에 따라서 그 사용이 規制(經國大典)되어 있었뿐 아니라 民弊가 된다하여 여러차례 제한이 되었다.

즉 英祖實錄 卷七六 二十八年四月壬辰條에는 「兵曹에서 燭하기를 이미 大小國葬時에 望燭과 松明炬가 民弊가 되므로 다 함께 없애라는 王命이 있었으니……」(兵曹啓言 既有大小國葬時 望燭松明炬 爲民弊並除之敎……)라는 記錄이 있고 또 같은 英祖實錄 卷九四 三十五年十二月에는 「……前略……只有 歲末庭燎 而非胎弊 眞人 有用 青竹一時燎焉 故予亦 遵昔年盛意 其命去之……」라 하여 그 어느 것이나 蠟燭과 炬등을 供出하기에 백성의 폐가 심하므로 絶약을 命한 것이다.

高麗에서도 王과 使臣의 行次에는 炬火가 이를 인도하고 護送하였으나 朝鮮朝에도 官員이 公務용으로 旅行할 때에는 步撥(말 대신에 荷物을 운반하는 사람)이 받쳐 들고 先導하였다.

燭臺와 燭籠

後期の 燭臺에도 鐵製와 鍮製 그리고 白銅製등이 있으며 현재 남아 있는 것만 하여도 多様할 뿐 아니라 그 姿態가 매우 아름답고 匠意이 特出한 名品들이 많다.

그림74처럼 反射版과 燈笠을 갖추어 照明度를 높이고 초에서 나오는 그을음을 막는 장치도 있다. 絶약하는 가운데 있어 民間人의 創意와 研究로 韓國特有의 멋과 手法을 살려 만든 燈器具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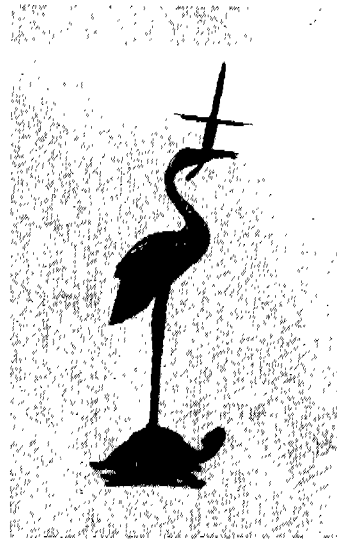
그리고 그림77과 같이 값이싼 鐵製 및 白銅이나 漆器 대신에 木製로써 燈臺과 燭을 兼用할 수 있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實物이나 사진조차 얻을 수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珍品들은 대개가 貴族이나 富裕層에서 사용되었고 後期에서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은 역시 竹節燭臺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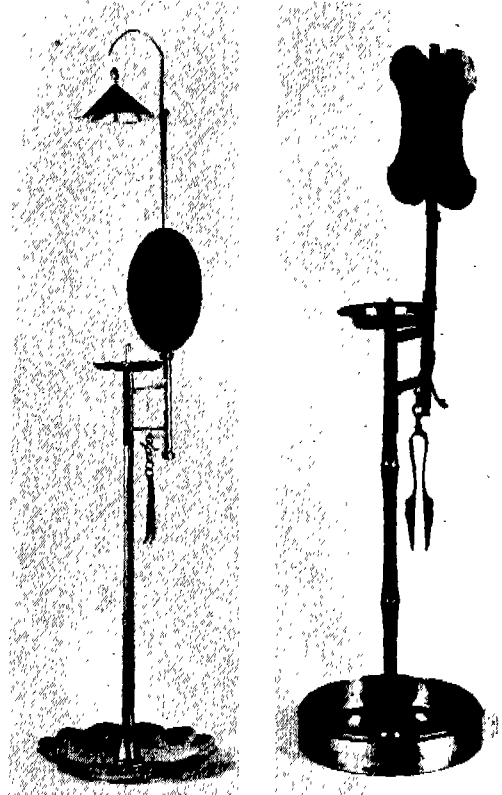
또 이와같은 燭臺에 사용하는 蠟燭에 華燭이라는 것이 있다. 密蠟을 材料로 하여 唐朱紅이라는 값비싼 染料를 넣고 牡丹文등을 陽刻한 것이다.

그 심지는 韓紙를 가늘게 꺾어 접은 것을 사용하며 上部에 露出된 부분은 초에 잠기게 하여 붉게 彩色, 부채모양으로 편다. 말하자면 婚禮를 華燭之典 또는 華燭을 밝힌다고 하는 것은 이 華燭을 式場에 밝히기는 데에서 由來한 것이다.

英祖實錄 卷六九 二十五年五月癸酉條에 「王이 翁主의 婚禮에 사용하는 華燭의 染料로 값비싼 唐朱紅 대신에



〈그림-75〉 鍮製鶴燭臺



〈그림-74〉 鍮製燭臺

〈그림-76〉 白銅燭臺

紫草를 쓰도록 下命했다」(命翁主婚 以紫草染燭 先是用 唐朱紅 眞價倍蓰……)는 記錄이 있다. 唐朱紅이 輸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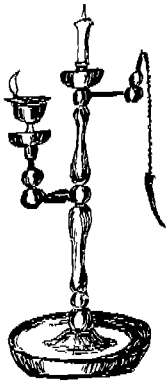
품이고 값비싼 것이어서 國産染料로 代用하여 절약을垂範한 것이다.

華燭의 크기는 길이 30餘센티미터, 直徑 5센티미터에 가까운 것이었으며 이관필때까지 韓電에 그 몇개가 소장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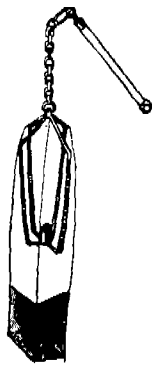
燭籠은 紗籠이라고 하며 그 文獻은 이미 高麗時代에서 詳述한 바 있다. 또 燭籠에는 提燈이라하여 휴대용이 있다.

그 代表的인 것이 純祖時代의 憲園 申潤福이 그린 그림 78의 燈火風俗圖에 나오는 提燈이다. 그림에는 男子가 오른손에 提燈을 들고 美人을 인도하고 있는데 圖贊에는 「月沈沈夜三更 兩人心事 兩人知」라고 쓰고 있다. 이것이 일반 庶民用的 提燈인데 여기에는 조와 또는 燈臺을 兼用할 수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蠟燭專用品으로는 그림 79와 같은 것도 있었다. 또한 肅宗實錄 卷五四 三十九年閏五月 甲寅條에 知經



〈그림-77〉木製燈架



〈그림-79〉燭籠



〈그림-78〉憲園의 燈火風俗圖

筵趙泰采가 庶人이 葬禮 때에 竹格燭籠을 사용하는데 마땅히 지금 이후부터 이것을 禁止하고 犯하는者는 論罪하여야 한다고 말하니 丁이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 (甲寅 御筵講 知經筵趙泰采 陳庶人送葬 僭用竹格燭籠 宜自今禁之 犯者論罪 上可之)라는 記錄이 있다. 따라서 竹格燭籠은 高貴한 用品이어서 일반 庶民은 사용을 禁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朴 燈

그 모양이 바가지를 만드는 박과 같다 하여 朴燈이라고 하며 또 종래 포졸들이 순라(巡邏) 때 사용하였기 때문에 照賊燈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보통 照足燈이라고도 한다.

백대는 鐵製로서 밑이 없고 윗부분에 손잡이가 있으며 내부에는 초를 쫓는 鐵製의 回轉機가 있어 上下 자유로히 회전할 수 있다.

酒 燈

英祖實錄 卷一一四 四十六年正月條에 丁이 낮에 經筵에 行次하였다가 承旨趙某에게 酒氣가 있는 것을 보고 大怒한 다음 各坊의 父老를 臨門召見하여 庶民에게도 酒弊가甚하다는 말을 듣고 刑曹로 하여금 大釀者를 杖하고 酒燈은 禁하였으나 끝내 禁止되지 못하였다 (…上又臨門召見各坊父老 或曰酒弊甚於丙子以前 令刑曹杖其大釀者 又禁酒燈 然竟莫能禁也)라는 記錄이 있다.

酒燈이란 酒幕집에서 긴막대기 끝에 단 提燈의 일종으로 말하자면 지금의 廣告燈이다. 현재에도 民俗酒店에서 이 酒燈을 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故老들의 懷告談에 의하면 日韓末 때 韓國에 와있던 露國人들은 시골 酒幕집의 酒燈안에 있는 초를 끌어내어 먹었다고 한다. 아마 蜜蠟으로 만든 초의 甘味때문에 그들은 菓子代用品으로 알았던 모양이라고 한다.

室內用的 燈器具

옛날부터 燈火는 人間에게 그리움과 꿈과 그리고 마음의 安息을 안겨 준다.

그래서 燈火는 자주 詩人墨客의 입에 오르내렸다.

따라서 照明은 光度만이 能率이 아니라 배와 場所에 따라 그 분위기에 알맞게 調節되어야 한다. 現代의 照明을 應用한다면 손쉽게 그 目的을 달성할 수 있으나 石油燈 이전의 照明으로서서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電燈이 들어오기 이전의 朝鮮朝末期의 宮殿에서는 寢殿과 같은 要所에는 다섯자루꽃이나 여섯자루꽃이의 燭

솥에 蜜蠟製의 초를 點火했다. 그밖의 附屬室에는 牛脂製의 초가 사용되었으며 宮殿外廓의 건물에서는 뒤에 石油燈도 사용되었다.

그리고 王宮이나 政府 各機關에서 燈燭을 취급하는데 있어서는 각기 專門官職이 있어 嚴重한 管理下에 출납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既述한 바와 같이 經國大典 以來의 諸規則이나 實錄 그밖의 文獻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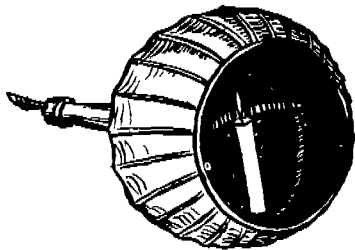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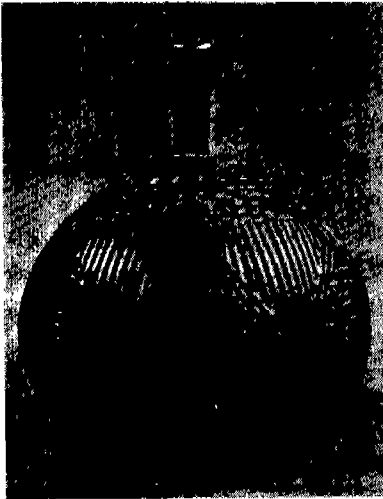
즉 儀式用的 燈火에도 일정한 規格이 定하여지고 있는데 國記, 儀式, 嘉禮順序, 婚禮, 軍禮, 葬禮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기술하고 圖解까지 곁들여지고 있다.

蠟燭類의 出납을 嚴重히 관리하였던 것은 「光武七年 親衛隊 燈籠色燭 上下二冊(京電燈火史料室 所藏)이라고 表題한 出納簿의 세밀한 記述에서도 그 一端을 볼 수 있다.

光武七年(1903年)條의 一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陰歷正月 日

二兩燭拾伍柄 初一日 威寧殿 皇太子受百官 賀教是時 燈籠十五雙所用下



〈그림-80〉 朴燈(下는 朴燈의 使用例)

陸柄御前燈籠三雙 } 同日詣景孝殿還內教時所用
肆柄春前燈籠二雙 }

中 略

一兩燭七十六柄 初一日 威寧殿 皇太子 受百官 賀教是時 扶輿燈七十六盞所用下 洋燭二十柄 二十日 休憩所 日本公使 宴餉時 掛燈籠十雙所用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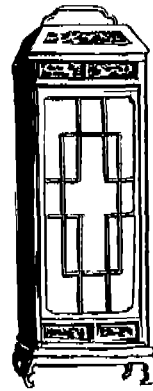
以上 二兩燭 參拾陸柄

洋 燭 參拾參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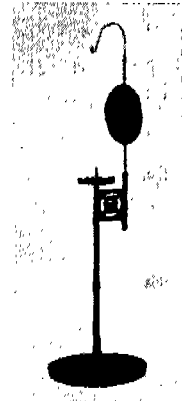
次知軍官 金鍾完 ④

愼管 ④ 金院洙 ④

그 당시 王宮이나 貴族 그밖의 富裕層 家庭의 室內에서 사용된 燈器에는 그림81과 82의 것이 있었다.



〈그림-81〉 燈架



〈그림-82〉 鐵製燭臺

그림81의 燈架내부에는 조그마한 白銅製나 鍍製의 竹筵 燭臺를 장치하여 초를 꽂는 것이 正式의 사용법이었다. 그러나 後期에는 陶磁器 燈臺도 사용되어 초뿐만 아니라 石油燈도 兼用되었다.

또한 이 燈架는 長燈이라고 불리었는데 日人 鮎貝房之進씨는 「長燈…… 보통 從來 私家에서 사용된 坐照籠과 木製, 鐵製의 구별이 있을 뿐이다. 長四方形, 무쇠기둥에 油紙를 바르고 上部에 손잡이 下部에 蓋가 있고 側에는 서랍이 붙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朝鮮朝의 燃燈會

前述한 바와 같이 王朝實錄에 의하면 國初에는 前朝에 例에 依하여 上元燃燈이 行하여졌으나 太宗時代에 이르러 同王16年 「自令 上元張燈을 罷하고 이미 備置된 燈은 四月八日에 이를 使用」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서 上元燃燈會는 民間에서 「영등祭」로 바뀌어 傳承하고 되고 초파일의 觀燈會는 朝鮮朝時代에 이

어져 現代에 이르러 더욱 盛行하게 되었다.

顯宗實錄 卷五 三年四月戊辰條에 掌令 李程등이 前正言丁昌燾가 燈夕에 士大夫의 子弟들과 어울려 술에 취하여 娼家를 지나면서 武人輩와 女人들이 會飲하는 자리에 亂入하여 싸움이 벌어졌으니 士大夫의 수치이므로 罷職하라는 記錄이 있다.

또 正祖實錄 卷三四 十六年四月丙午條에는 「上詣內苑 耦射 是日即放燈日也」라고 記錄되어 있는데 放燈日은 即 초파일 觀燈會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朝鮮朝時代에도 이 4月8日의 觀燈日에는 夜禁을 풀었다고 한다.

이때에 쓰인 燈燭은 일반적으로 종이로 만든 극히 粗製品으로서 燃燈會의 하루밤만 사용되었으나 宮中등에서 쓰여진 本格的인 燈籠에는 料絲燈이나 羊角燈도 있었다고 한다. 그 당시의 遺品の 相當數가 京電燈火史料室에서 수집된 것으로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料絲燈이란 木格에 종이를 바르는 대신에 5色の 유리구슬을 실로 꿰어서 바른 것인데 下部로 느리운 장식도 色紙대신에 유리구슬로 이어 놓은 것이다.

또한 羊角燈은 元來 羊角을 유리와 같이 얇게 펴서 球形으로 만들어 彩色面를 넣어 燈籠으로 한 것이다. 이것은 明代以前의 作品으로 오늘날에는 記錄에서나 볼 수 있는 珍品이며 後世에는 유리의 羊角燈이 사용되었다.

石油의 導入

蠟燭이나 기름을 사용하던 燈火는 石油가 수입되고 石油燈이 사용되면서 그 光力에 있어서나 燈器具에 있어서 하나의 革命을 맞이했다.

종래의 찬기름 등은 石油와 비교될 수가 없었을뿐 아니라 牛脂, 豚脂, 密蠟製의 쯤는 洋燭에 比하면 問題가 되지 않았다.

韓國에 石油類나 洋燭이 최초로 수입된 것은 대체로 1876年(高宗 13年) 日本과 江華島條約이 조인되어 무역이 개시된 시기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梅泉野錄 卷 之 上 「石油의 始用」條에는 「……我國自庚辰後始用 其初 色赤而臭極惡 一合可燃十數夜 不數年 色漸白 臭漸淡 火力傾減 一合可燃三四夜」라고 하여 우리나라에 石油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880年(高宗 17年)으로 記錄하고 있다.

이 記錄에 의하면 최초에는 가장 下級品의 石油가 輸入되었고 數年後에는 精製燈油가 들어온 것 같이 생각된다.

그리고 同書에는 성냥에 관한 記錄도 있다.

「……洋燭火筒 亦隨石油盛行 民間謂之白起黃…」 「…是歲 因洋俗 用石炭石油洋火燭…」라고 했다. 즉 石油의 사용에 따라 洋燭火筒 곧 성냥도 盛行하였는데 민간에서는 白起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成냥이 石油의 사용과 함께 盛行하였다는 사실이나 또 그동안 계속되었던 淸과의 朝貢貿易과 使臣의 往來등으로 미루어볼 때 成냥은 이미 그 以前에 國內 일부에서는 부분적인 사용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에밀 마텔씨에 의하면 韓國에 本格的으로 石油가 수입된 것은 美國의 各商社가 스탠다드등의 石油를 韓國에 들여 오면서부터 일반에 보급되었다고 京電燈火史料室 關係者에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 以前에도 역시 淸國이나 日本에서 小容器의 石油罐등으로 조금씩 수입되었으나 高價品이므로 일반에게 까지 보급이 안된 것으로 추측된다.

京電燈火史料室에서 1900年頃에 시행된 外國과의 通商條約에 의한 關稅規則(Import Tariff)를 入手한 일이 있었는데 이에 의하면 韓國의 輸入品日中 燈火에 관계가 있는 것은 火石, 煤炭油 및 金石 各油, 提燈, 自來火, 燭등이 있는데 그중 「오스트리아」와의 規則에는 다음의 各項이 있다. 「火石 부싷불(Filnts), 煤炭油 및 金石各油(Kerosene and Petroleum and all Other Mineral Oils), 提燈(紙造品)(Lanterns-Paper), 自來火(Matches), 藥油(Vegetables all Binds), 燭(Candles) 松脂(Resin), 牛羊等油(Tallow), 蠟(蜂蠟, 樹蠟)(Wax Bees's and Vegetable)」

또한 1901年 「벨기에」와의 規則에도 「自來火(Match), 煤炭油, 提燈(紙造品), 火石(Sillex), 蠟燭(Bongies), 燈架各式(Lamps de Toule' Espece), 蠟油(Snif) 등의 品目이 있다.

이 중에서 「燈架各式」이라고 한 것은 주로 歐美各國製의 石油램프로 생각된다.

石油燈器具

石油의 사용과 함께 石油燈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石油램프와 石油燈蓋이 바로 그 것이다.

그림83은 프랑스의 유명한 「세불」陶器로 만든 것으로 1800年代 初期에 佛領印度支那의 天主敎會에서 사용되고 있던 것을 神父가 轉任하면서 서울 明洞의 天主敎會에 가져온 것을 京電燈火史料室에서 入手한 것으로 傳하여지고 있으나 지금은 現品과 사진을 求할 수가 없다.

그림84와 85는 石油白磁燈蓋의 代表的인 珍品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가 京電燈火史料室에 所藏되었다가 文公部에 이관된 것이다.



〈그림-83〉 石油램프



〈그림-85〉 白磁兩注燈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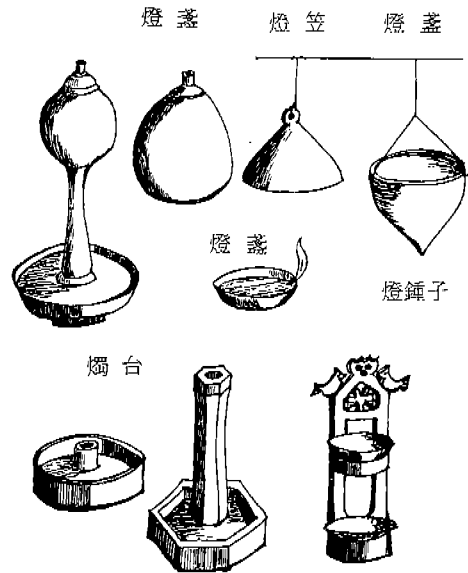


〈그림-84〉 白磁小型燈잔

그림85는 심지가 둘이라고 하여 兩注燈盞이라고 하며 또 書堂에서 많이 쓰여졌다고 하여 書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어쨌든 光力을 높이기 위해서 심지를 두개로 한 것이 재미있는 創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兩燈盞은 밑에 花開花盤이 있고 瓶口에는 심지를 끼우는 작은 구멍이 있다. 그림84에는 끈으로 심지를 切斷하거나 끼워올리는 가위가 달려 있어 匠匠이나 솜씨가 뛰어난 名作이라고 하겠다.

日人 淺川巧씨의 朝鮮陶磁名考라는 書冊에는 1930年代까지 사용된 陶磁器製의 燈器를 여러가지 示하여說明하고 있는데 그 중에 「燈用으로서는 燈, 燈盞, 燈笠,



〈그림-86〉 각종 陶磁燈器의 여러가지 (朝鮮陶磁名考에서) 上端左側의 燈盞 2 개는 石油가 輸入된 이후에 쓰여졌다.

燈鍾子, 燭臺, 燭筒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燈器類가 愛用된 時代의 胡麻油는 뒤에 石油로 바뀌어지고 密蠟은 石蠟으로 代替되는등 材料의 變遷과 더불어 그 器物도 사람들의 記憶속에서 忘却되어 가고 있다」고 記述하고 있다.